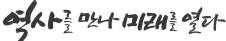
 독립기념관		보 도 자 료			
보도일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총 3쪽(사진별첨 6점)	
배포일자	2019. 03. 27. (수)	담당부서	독립기념관 전시부		
언론담당	고객홍보부 고다현(041-560-0241)	담당자	정현희 학예연구사 041-560-0273		

독립기념관, 2019년 4월의 독립운동가 선정 및 전시회 개최
 - 한국 독립운동의 스승 안창호 -
 [安昌浩, 1878. 11. 9. ~ 1938. 3. 10. 평남 강서]

독립기념관(관장 이준식)은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독립운동가 안창호를 2019년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공훈을 기리는 전시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 전 시 개 요 ▶
- 기 간 : 2019. 4. 1. ~ 4. 30. (한 달간)
 - 장 소 : 독립기념관 야외 특별기획전시장(제5·6관 통로)
 - 내 용 : 안창호 사진 등 9점

도산島山 안창호는 1878년 11월 9일 평안남도 강서군 초리면 칠리 봉상도(일명 도룡섬)에서 안흥국安興國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하던 안창호는 청일전쟁을 목격하며 큰 충격을 받았고, 서울에서 선교사 밀러를 만나 민노아학당에 입학하게 되었다. 신학문을 3년간 수학한 이후 그는 독립협회의 민권운동에 참여하면서 국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국민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그리하여 독립협회 해체 후에는 교육과 전교활동에 전념하며 본격적인 교육학 공부를 결심하게 되었고, 1902년 이해련과 혼인한 다음날 부부가 함께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안창호는 한인들의 생활태도와 여건을 개선하고 한인친목회를 결성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단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리버사이드의 오렌지농장 노동자들에게도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정성껏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라고 강조하며 한인에 대한 신용을 높이는데 힘썼고, 점차 한인사회의 지도자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1905년 4월에는 동지들과 함께 조국 광복을 사업목표로 한 정치단체인 공립협회를 창립했다. 안창

호를 초대회장으로 한 공립협회는 각지에 지방회를 확대해 나갔고, 『공립신보』를 통해 국내외 소식을 알리는 등 구국사업을 전개하면서 이후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대한인국민회로 발전했다.

안창호는 귀국하여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청년학우회를 조직하는 등 다방면의 민족운동과 함께 항일비밀결사 신민회 활동을 통해 국권회복을 전개했다. 그러나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 후 국내에서의 독립운동 전개가 어려워지자 1911년 미국으로 돌아와 활로를 모색했다. 먼저 대한인국민회의 조직을 미주 뿐 아니라 시베리아, 연해주, 만주 등지로 확대하는 한편 흥사단을 설립해 독립운동의 조직과 기반을 마련했다.

3·1운동 이후 수립된 상하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서리 겸 내부총장으로 취임한 안창호는 독립운동세력의 통일을 역설하며 임시정부의 체계를 세우고 임시정부 통합을 이끌었다. 임시정부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독립운동단체의 통합과 이상촌 건설운동에 매진했다.

1932년 윤봉길 의거와 관련하여 연행된 후 2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안창호는 동우회 사건으로 다시 수감되며 지병 악화로 1938년 3월 10일 순국했다. 정부는 민주주의적 민족국가의 수립을 위해 헌신한 안창호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 주요 공적

- 1907 신민회 조직, 대성학교 설립
- 1912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회장, 1913 흥사단 조직
- 1919 임시정부 국무총리서리 겸 내부총장
- 1937 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 수감
- 1962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 주요사진자료

 <p>1.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 서리 겸 내무총장으로 활약할 당시의 안창호_1919.</p>	 <p>2. 안창호 여권_1902. 안창호가 미국 유학을 위해 받은 대한제국 발행 집조(여권)이다.</p>	 <p>3.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를 수확하는 안창호_1912.</p>
 <p>4. 대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_1909. 대성학교는 국권회복운동에 필요한 인재와 국민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평양에 설립됐다.</p>	 <p>5.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임시의정원 의원의 신년축하기념_1921.1.1.</p>	 <p>6. 동우회 사건으로 피체되기 전의 안창호_1936. 1932년 윤봉길 의거와 관련해 일경에 붙잡혀 2년 6개월 간의 옥고를 치른 안창호는 국내 민족운동을 말살하기 위해 일제가 조작한 '동우회 사건'으로 1937년 다시 수감됐다.</p>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독립기념관 학예연구사 정현희(☎ 041-560-02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